

푸른 비색에 깃든 형상의 세계

고려 사람들이 빚어낸 상상의 세계가 푸른 비색 위에 펼쳐진다. 국립광주박물관은 도자문화관 개관을 기념해 오는 3월15일까지 본관 1층 특별전시실에서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를 진행한다. 고려청자의 예술성을 대표하는 '상형청자(象形青磁)'를 주제로 하는 전시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3월 막을 내린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의 두 번째 순회전으로 마련됐다. 상형청자의 제작과 향유, 소재와 쓰임, 종교적 맥락에 따른 사용까지 청자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4부 구성으로 풀어냈다.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개관 기념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 순회전
국보 3점, 보물 4점 등 명품 청자 한자리



청자 어룡모양 주자(국보)



청자 죽순모양 주자(보물)



청자 원숭이·석류모양 연적

전시에는 상형청자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청자 사자모양 향로'를 비롯해 국보 3점, '청자 죽순모양 주자' 등 보물 4점의 국가지정 문화유산을 포함한 상형청자 114건 131점을 출품됐다.

상형청자는 인물과 동물, 식물 등 다양한 형상을 본떠 만든 청자로, 우아한 조형미에 고려청자 특유의 비색이 더해져 완성됐다. 이는 한국 미술의 높은 기술적 성취와 독자적 미감을 동시에 보여주는 대표적 문화유산으로 평가된다.

제1부 '상형청자란'에서는 흙으로 특정한 형상을 빚어내는 '상형'의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고려 사람들에 의해 탄생한 상형청자의 특징을 살펴본다. 당시 장인들은 그릇에 다양한 형상을 유기적이고 정교하게 표현하며 조형성과 실용성의 균형을 이뤘다. 관람객은 일반 청자와의 비교를 통해 상형청자에 담긴 풍부한 감성과 표현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제2부 '제작에서 향유까지'는 고려 왕실과 상류층이 향유했던 상형청자의 제작과 유통, 소비 과정을 조명한다.

1123년 고려를 방문한 복송 사신 서공은 사자모양 향로를 보고 감탄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다.

당시 귀족 문화의 유행은 상형청자 제작을 이끈 중요한 배경이 됐다.

강진 사당리 가마터와 부안 유천리 가마터 등 주요 가마터 출토 유물을 통해 장인들의 실험과 도전의 흔적을 엿볼 수 있으며, 태안

과 진도 해역에서 발견된 상형청자는 바닷길을 통한 운송과 유통의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제3부 '생명력 넘치는 형상들'에서는 상형청자를 권위와 지위의 상징이자 자연을 곁에 두고 감상하는 매개로 바라본다.

용·기린·사자 등 상상의 동물을 표현한 작품에서는 고려 사람들이 그린 상서로운 존재의 이미지를 엿볼 수 있고, 오리·물고기·원숭이와 복숭아·석류·연꽃·침와 등 주변 자연을 형상화한 작품에서는 일상 속 자연을 즐기던 감각이 전해진다.

제4부 '신앙으로 확장된 세상'은 상형청자가 실용과 미를 넘어 정신적 세계로 확장된 양상을 보여준다.

도교와 불교 의례에 사용된 그릇과 불상, 서왕모 신앙을 바탕으로 한 인물 형상 청자, 나한상 모양의 청자 등은 앞선 전시와 또 다른 차원의 시각적 경험을 제시한다.

전시 이해를 돋우기 위해 온라인 전시설명서와 어린이용 디지털 전시 가이드 등 연령별 온라인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CT 활용을 통해 내부 구조를 살펴보는 'CT로 본 상형청자', 촉각 체험이 가능한 '만져 보고 상상하는 고려 상형청자' 공간 등 체험형 콘텐츠도 함께 선보인다.

최홍선 국립광주박물관장은 "천 년 전 고려 사람들이 사랑하고 향유했던 세상 속에서 고려청자의 비색과 형상이 전하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시민 눈높이에서 만나는 '불탑 이야기'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한땀기부' 시리즈

로, 평생에 걸친 천 교수의 석탑 연구 성과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유하는 자리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노경수)이 시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 지식 나눔 프로그램인 '한땀기부' 시리즈를 운영한다.

'한땀기부'는 시민들이 각자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시민문화 운동이다. 단순 강좌를 넘어 건축 상담소, 미술 안내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시민문화 플랫폼으로 확장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시리즈는 천득업 전남대 명예교수의 시민강좌 '보들탑'으로 진행된다. '보들탑'은 '보여주고 들려주는 불탑 이야기'라는 의미

로, 국내에는 1천400여개의 석탑이 남아 있으나 이를 깊이 있게 이해할 기회는 드물었다. 당초 소모임으로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은 신청자가 폭주함에 따라 무료 공개 시민강좌로 전환됐다.

노경수 이사장은 "시민이 필요로 할 때 자리를 여는 것이 재단의 역할"이라며 "한땀기부"는 시민의 혼신과 시민의 참여가 만나는 문화민주주의의 실천"이라고 밝혔다.

강좌는 오는 3월9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30분 전일빌딩245 중회의실에서 총 8회에 걸쳐 열린다.

/최명진 기자

국립남도국악원 '찾아가는 국악원' 공연 시설 모집

오는 13일까지 접수

각 시설의 특성과 관람객 연령·구성에 맞춘 맞춤형 공연을 제공한다.

국립남도국악원이 '2026 찾아가는 국악원' 사업 추진을 위해 공연 대상 시설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가·무·악 종합공연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지역 내 문화 취약 계층에게 전통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3월부터 12월까지 총 6회 진행되며,

참가를 희망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국립남도국악원 홈페이지 내 공고를 참고, 오는 13일 까지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16일 게시되며, 이후 선정 시설에 대한 사전답사가 진행된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문화 소외 지역과 신규 참여 시설을 우선 선정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최명진 기자

전남대 동문 예술인 한자리…'2026 신년음악회'

내일 전남대 민주마루서



곡'으로 문을 연다.

이어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순승범),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중 '파드 데'를 선보인다.

소프라노 윤한나는 프란츠 레하르 오페라 '주디타' 중 '내 입술, 그 입맞춤은 뜨겁고'

를 노래하며, 바이올리니스트 정신하는 사라 사례의 '찌고이네르바이젠', 동수정은 베토벤 '파아노 협주곡 5번' 1악장을 연주한다.

후반부 무대에서는 윤한나와 손승범이 레하르의 이중창 '입술은 침묵하고'를 들려주며, 보로딘의 오페라 '이고르 공' 중 '풀로베즈 인의 춤'으로 공연이 마무리된다.

/최명진 기자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국

지방
지사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불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철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영암지사 061)473-7151
- 진도지사 061)542-4330

www.kjdaily.com

